

곡성군, 내년 예산안 4천611억 편성...“민생경제 활성화”

전년比 3.5%p ↓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

조상래 군수 “삶의 질·지역 미래 중점 편성”

곡성군이 4천611억원 규모로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을 곡성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4천776억원)보다 약 165억원(3.5%) 감소한 수치로 세입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

비 보조사업 등이 줄어든 결과다. 곡성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했으며,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골자로 예

산을 편성했다. 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261억원, 세외수입 129억원, 지방교부세 2천252억원, 조정교부금 70억원, 국·도비 보조금 1천456억원, 순세계 잉여금 160억원 등이다. 특히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예산은 총예산의 21.1%를 차지하는 925억원을 편성해 초진축 재정 상황에서도 약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고 복지 사각지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다.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 배분은 사회복지 925억원(21.1%)이 편성됐으며, 뒤이어 농림 922억원(21.0%), 환경 289억원(6.8%), 국토 및 지역개발 272억원(6.2%), 일반공공행정 254억원(5.8%), 문화 및 관광 201억원(4.6%), 교통 및 물류 115억원(2.6%), 공공질서 및 안전 101억원(2.3%), 교육 97억원(2.2%), 보건 71억원(1.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0억원(1.4%) 순이다.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 지원 357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37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90억원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 70억원 ▲삼기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52억원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36억원 ▲농어민 공익수당 42억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41억원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 36억원 ▲송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16억원 등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경기침체와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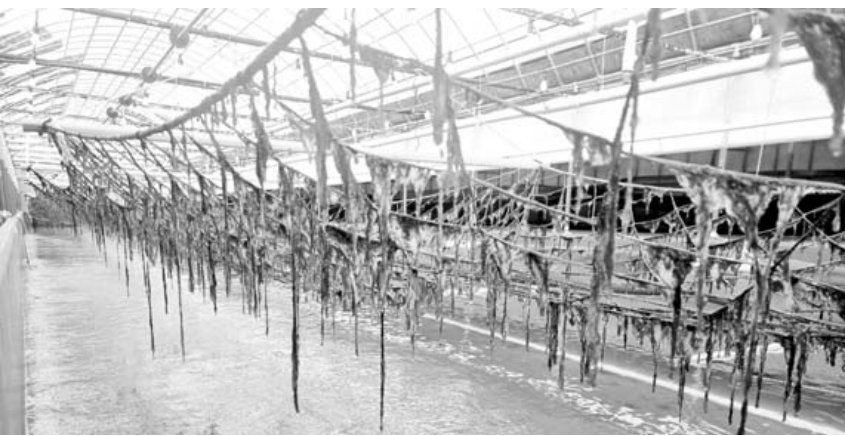
부 사태가 2년 연속 이어지면서 군의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어려울 시기”라며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민의 일상과 지역의 미래를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17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곡성=김영필 기자

‘전국 김 생산량 1위’ 고흥군, 육상양식 세계화 선도

1차 시범 양식 성공...간척지 활용 양식시대 개막 ‘박차’

고흥군이 바다에서 생산되는 김 양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중 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김 육상양식(사진)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1차 시범 양식에 성공했다. 25일 고흥군에 따르면 김 육상양식은 육상 양식장에서 수조로 바다와 최대한 유사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 김 원초를 재배하는 신기술로, 김에 생기는 질병인 갯병과 해양오염 문제에서 자유롭고 수온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아 연중 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지난해 고흥군은 자체 사업으로 김 육상양식 산업화 성공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육상에서 물길 업체가 시판 가능 크기인 40-50cm까지 성장하는 결과를 이끌어 1차 시범 양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

며, 이를 토대로 지하 해수를 활용한 2차 시범 양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고흥군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4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 공모’에서 고흥 도덕면에 소재한 하나수산이 사업자로 선정돼 국비 6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0억원을 확보했다. 2차 시범 사업은 1차 시범 양식의 성과를 바탕으로 품질 향상, 마른김 생산을 위한 연구, 김 성장 저해 요인 보완, 기계·장비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양식장 규모를 확대하고, 세계적 육상 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흥의 지하 해수는 일반 해수보다 무기질소 함량이 4-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황백화 기준 대비 45배에 달하는 무기질소를 함유하고 있



다. 일반 해수의 경우 무기질소 함량이 1ppm 미만으로 확인되며, 김 양식 시 무기질소의 함량이 0.07ppm 미만으로 낮아지면 황백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고흥군은 2023년 고흥만 간척지 내 김 육상양식 등 친환경 양식 기반 구

축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앞으로는 군은 대상주파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양수산부 주관 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고, 대상주파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선도적으로 육상 김 양식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고흥=최봉환 기자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역사를 한 자리에 모아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 왼쪽부터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 전경과 전시 포스터. <순천시 제공>

순천그림책도서관, 한국 그림책 10년 역사 ‘한 자리에’

오늘부터 내년 3월23일까지...개관 10주년 소장품전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그동안의 역사를 한 자리에 모아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25일 순천시에 따르면 26일부터 2025년 3월23일까지 그림책도서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도서관이 수집한 원화를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로 네 개의 주제

별 섹션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한국 그림책의 경향과 변화를 한눈에 보여준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수상자인 이수지 작가를 비롯해 폴란드 대표 그림책 작가인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등 국내·외 저명한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도 전시된다. 이와 더불어 인형극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개관한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림책 원화를 수집하는 도서관으로 현재 213점의 원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꾸준히 그림책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해 후대에 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관 이후에는 에릭 칼, 앤서니 브라운, 류제수, 이수지 등 국내·외 다양한 작가의 그림책 원화 전시회와 그림책 인형극, 전시 해설, 체험 프로그램

을 운영해 전국적인 사랑을 받았다. 지금까지 26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그림책 문화 확산에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2017년부터 시작한 ‘내 인생 그림일기’ 수업을 통해 글과 그림을 배운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란 책으로 출간돼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이 세계적인 문화콘텐츠 기업과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문화산업의 메카로 발전하는 데에 그림책이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담양군-광주청사관리소, 상생협력 협약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지역 농특산물 판촉 지원 등 협력

담양군은 “최근 광주청사관리소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담양군과 인근 기관이 각자의 자원을 활용해 상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호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 ‘지역 농특산물 판촉 지원’을 통한 농민 소득 증대 및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도모, ‘새내기 및 청년 공직자 교류 행사 공동 개최’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고향사랑기부 참여 유도를 위한 정보 제공,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 지원 등을 통해 담양에 관심과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협력한다. 또한 광주합동청사 내 ‘금요장터’를 수시 운영해 담양군 관내에서 생산된 제철 농특산물의 판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사 입주 직원과 방문객들은

지역의 신선한 제철 농특산물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고, 담양군은 농가 소득과 더불어 담양군 농특산물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의 새내기 및 청년 공직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문화행사 등을 공동 개최해 직원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기관 상호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광주청사관리소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담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증대와 더불어 담양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성 광주청사관리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중앙부처-지자체 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청년층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김한중 장성군수, 상무대 주거시설 신축 추진 ‘박차’

안규백 국방위원장 면담 당위성 설명... 국회 예산 심의 중

김한중 장성군수가 상무아파트 신축 추진에 힘을 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장성군에 따르면 육군 최대 규모 군사교육시설인 상무대 장병과 가족들이 거주 중인 상무아파트는 1994년 건립돼 노후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그동안 거주민들의 불편 호소로 신축안을 검토해 오던 중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며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김한중 군수는 지난 10월 상무대 학교장,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165세대 규모 상무아파트 신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이달 6일에는 국

회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위원장에게 상무아파트 신축 당위성을 설명했다. 사업비는 아파트 2개동 165세대 신축에 4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내 신임 장교 숙소 및 식당 건물 신축도 함께 검토 중이다. 장성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무대 교육생 체육시설 보수 ▲상무대 도서관 건립비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중 군수는 “상무대 숙원사업이지만 지역현안이기에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마땅하다”며 “상무아파트 신축 추진은 물론,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구북구 화순군수,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

서삼석·박희승 의원 등 면담...현안사업 예산 편성 요청

구북구 화순군수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5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구북구 군수는 국회를 방문, 서삼석, 전종덕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을 만나 2025년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편성에 협조를 구했다. 주요 사업은 ▲화순 한국 난(蘭)산업단지 조성비(75억원)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조기폐광에 따른 지역 특화산업단지 개발비(102억원) ▲백신안전기술 지원센터 지원사업(69억원) 등이다. /화순=이병철 기자

구 군수는 202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꾸준히 방문하며 지역 내 예산 지원이 시급한 주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건의해 왔다. 이번 국회 방문 역시 군정 현안을 직접 설명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구북구 군수는 “내년도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 현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며 최종 예산 편성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

여수 망마체육센터, 최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김유화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시민 편의·복지에 최선”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25일 “망마국민체육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주최 2024년 최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 공단은 이번 수상으로 장관 표창과 인증 동판을 받고, 해외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얻게 됐다. 문체부는 지난 10월부터 전국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경영관리, 운영 활성화, 시설관리 등 3개 부문 10개 지표를 평가했다. 그 결과 수도권, 충청·제주권, 전라권 등 5개 권역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시설을 최우수 공공체육시설로 결정했다.

망마국민체육센터는 광주, 전북, 전남을 아우르는 전라권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선정위원회는 센터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갑습 추천과 유튜브 생중계를 호평했다. 센터는 ▲갑습 진도 일원화 ▲초급반 적체 해소 ▲초등 생존수영 지원 ▲CEO 중대재해 안전 점검 ▲재활용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등 운영 효율화와 ESG 경영에 힘썼다. 여수시 체육지원과의 지원과 협력,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 이번 수상의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김유화 이사장은 “2010년 망마국민체육센터 개장 이래 처음으로 최우수 공공체육시설에 선정됐다”며 “변함없이 시민 편의와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지난 2019년

1월1일부터 망마국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연면적 3천299㎡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25m 8레인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갖추고 있으며, 직원 25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